

# 문재인 낙동강 전투 힘겨운 1위

누적 득표율 45.95%…과반 미달 여전

오늘 광주·전남 27곳서 투표소 투표

민주통합당 경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7연승을 이어갔다. 하지만, 누적 득표율이 50% 이하로 계속 떨어지면서 결선 투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6일 치러지는 광주·전남에서의 승패가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변수로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4일 경남 창원시의 창원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지역 순회경선에서 선거인단 유권투표수 2만5908표(62.60%) 중 1만1683표(45.09%)을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두관 후보가 1만1381표(43.93%)를 얻어 뒤를 이었다. 손규학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각각 2444표(9.43%)·400표(1.54%)를 얻었다.

문후보는 7곳의 경선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에서도 6만1904표(45.95%)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과반 획득에 실패해 향후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 실시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누적 기준으로는 손 후보가 3만503 표(22.64%)로 2위를 차렸다. 김 후보(2만7417표·20.35%), 정 후보(1만4905표·11.06%) 순이다.



문 후보의 지역별 누적득표율은 제주(59.8%)·울산(57.3%)·강원(55.3%)·충북(52.3%)·전북(45.7%)·인천(46.2%)·경남(45.9%) 등으로 순회경선 때마다 떨어지고 있다.

문 후보의 입장에서는 누적 득표율이 과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결선 없이 당 대선 후보로 직행하려던 당초 전략에 다소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7연승으로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선투표 가능성이 커져 역전파의 우려를 안게 된 것이다.

문 후보가 대세론을 굳힐지, 아니면 결선투표가 실시될지를 가를 최대 승부처는 6일 광주·전남 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엔 13만9000명의 선거인단이 몰려있고, 투표 결과는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에 육박하는 경기(15일)와 서울(16일)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때문이다.

한편, 5일엔 광주·전남 지역 27곳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소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소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장소는 시·군·구청 또는 각 지역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남 경선'에서 1위로 확정된 후 환호하는 지지자들

## 박근혜, 진보인사 영입 '외연확장'

장하준·정태인·이영탁씨 등 접촉

김지하·최장집·이외수씨도 거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가 정치적으로 대작전에 있는 진보 인사들의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 새누리당의 정책기조 변화를 상징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뒷받침하고 외연 넓히기를 통한 중도로의 지지층 확장을 위해 대선 선대위에 진보 진영 인사를 다수 포함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익힌다.

진보 성향의 경제 학자군이 일단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냈던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내부 브레이스팅 리스트엔 김지하 시인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소설가 이외수씨, 인

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과 박세일 전 의원 등의 이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4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영입론과 관련,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누가 누구를 만나고 그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것은 저도 모르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안철수, 민주 공개행사 첫 참석할까

직접 추천사까지 쓴 송호창 의원 출판기념회 참가여부 관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이 오는 18일과 다음달 4일 예정된 민주당 송호창 의원의 책 '같이 살자'의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 참석할

의미를 애써 축소하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치참여 여부를 고심 중인 안 원장이 민주당 측과의 접촉률을 넓히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주평화연대, 김기식 의원이 주축인 시민정치포럼, 김한길 최고위원이 대표인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모임' 등이 안 원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원장은 송 의원과 친구사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우며 4·11 총선 때는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송 의원은 "안 원장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안 원장 측

했었다.

안 원장은 지난날 김부겸 전 의원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김 전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 원장에 대해 "상황 좋으면 거제먹겠다는 식으로 정치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을 보고 안 원장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 성사됐다고 한다.

안 원장이 이 자리에서 조언을 구하자 김 전 의원은 "민주당과 단일화를 꼭 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힘을 모으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윤호중 사무총장 "안철수 입당없는 단일화는 없다"

민주 윤호중 사무총장은 4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과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민주당 입당을 전제하지 않는 단일화 협상을 있을 수 없다"고 못 밟았다.

그는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의 공천현금 일부가 친노(親盧·친노무현) 인사에게 송금됐다는 의혹에 대해 "친노 진영 인사라고 하면 민주당 내 수백 수천 명이 되지 않을까 싶

다"며 "그냥 특정계파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만 갖고 당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반환점 돈 민주 경선…홍행부진·잡음 속출

김두관 '이박문 삼각동맹설' 제기

박지원 원내대표 '불세례' 봉변도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3차례의 전국 순회경선이 4일 실시된 경남 경선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둘았으나 당 지도부의 미숙한 경선 진행 등으로 홍행 부진과 잡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첫 순회경선인 제주 경선에서는 손학규·김두관·정세균 후보 등 비문(비문재인) 주자들이 모두 비밀투표 방식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26일 울산 경선을 '보이콧'했다. 이에 당 지도부가 모바일투표 룰을 일부 개정할 의사를 비주자 비문 주자들이 하루만인 27일 복귀를 선언, 가

까스로 경선은 정상화됐다.

하지만, 비문주자들이 '이·문'(이해찬·문재인) 단합론을 내세워 친노당권과 향후 혼탁 서비스를 계속 제기하는 등 '문 대 비문' 간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으로 경선이 전개되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단합론이 불거진 대표와 원내대표, 이를 '단합'이라고 한 문재인 후보 간에 삼각동맹이 이뤄진다"며 '이·박·문'간 '삼각동맹설'을 제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밤 김한길

최고위원의 모친 상가를 찾았다가 동교동에 인사인 김태랑 전 의원으로부터 '불세례' 봄번을 당했다. 김 전 의원은 "대체 당 꼬리지가 이게 뭐냐"는 자신의 불만 제기에 박 원내대표가 "말을 가려서 해야죠"라고 응수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잔에 담긴 물을 박 원내대표에게 끼얹었다.

이에 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을 '방탕'으로 규정한 뒤 '경선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책임 있는 당직자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주당 순회 경선은 홍행에 실패했다. 마감 당일인 이날 오후 5시 현재 선거인단 등록자수는 107만3000여명으로, 최대 200만명이라는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2일 인천 경선까지 6곳의 투표율은 평균이 51.1%에 그치는 등 투표율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북경당 한의원

항상 이웃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며 오늘도 동행한다  
가문의 대(代)를 이는 북경당 한의원

마음에 향기를 마음껏 풍기며 정성(精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운 꽃중의 꽃이여라

##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9월중 확장이전  
전여고 예술의거리  
대한생명 한미쇼핑  
김병원 주차장 대인제동의원  
부경당 한의원

문의전화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상상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다불유저족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로 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6,750,000원  
국민은행 40,000,000원 3,2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동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주)피닉스텍 주주 여러분께

## 신주발행 공고

2012년 09월 04일에 개최한 (주)피닉스텍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자본에 전입한 금액과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7,035,420,000원

2.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발행주식수 : 703,542주

(3) 발행금액 : 7,035,420,000원

(4) 주식의 액면가액 : 1주당 10,000원

(5) 신주 배정기준일 : 2012년 09월 20일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7) 신주의 배정방법 및 단주주 처리

2012년 09월 20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단, 배정한 주식이 1주 미만의 단수주인 경우에 발생되는 단수주는 신주 배정기준일(또는 상장초기)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8)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2년 10월 12일

##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9조에 의거하여 신주 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식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팔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팔소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 배정 기준일 : 2012년 09월 20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2년 09월 21일 ~ 2012년 09월 26일

2012년 09월 05일

&lt;p